

고인 추모 노란 풍선 봉하마을 뒤덮어

盧 前대통령 49재 이모저모

○…노 전 대통령의 안장식이 열린 10일 봉하마을에는 수만개의 노란색과 검은색 풍선들이 물결을 이뤘다.

9일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등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안장식장과 노 전 대통령 사저, 봉하마을 입구, 추모문화제 특설무대 주변에 설치한 것으로 노란색은 고인을 상징하며, 검은색은 조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추모객들도 티셔츠나 모자, 손수건, 머플러 등을 대부분 노란색으로 착용해 조의를 표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의 유골함을 운구하는 차량이 이동하는 길 양쪽에는 노란색 천으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만들었다.

생전 영상물 상영에 눈물바다

○… 김해시 진영읍 봉화산 사자바위 아래 묘역에서 안장식이 진행되는 동안 여기저기서 추모객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 분위기를 더욱 숙연하게 했다.

특히 고인의 유년시절을 비롯해 변호사,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대통령 재임 및 퇴임 이후 생활을 차례로 보여준 추모영상물이 상영되자 많은 추모객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노 전 대통령이 직접 기타를 치며 ‘상록수’를 부르는 장면에서는 일부 추모객들은 생전의 고인을 기억하며 나지막하게 노래를 따라부르다가 끝내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의 안장식 행사에 참석한 권양숙 여사와 노건호 씨 등에게 추모객들의 위로와 격려가 쏟아졌다.

특히 유골함을 가슴에 안은 상주 간호씨를 뒤따라 권 여사가 나타나자 추모객들은 ‘힘내세요’, ‘기운내세요’라고 외치며 격려했다.

일부 추모객은 노 전 대통령의 유골함을 바라보며 ‘사랑합니다’라고 외치면서 눈물을 쏟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 100여명 총출동

○…노 전 대통령의 49재 및 안장식이 열린 봉하마을에는 민주당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정세균 대표와 송영길 박주선 김진표 최



고(故)노무현 대통령 49재가 10일 오후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분향소에서 거행된 가운데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영산제가 진행되고 있다. /위작량기자 jrwi@

고위원, 이강래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현역의원 50명과 당직자, 보좌진 등 100여명이 여의도에서 봉하마을로 옮겨왔다.

이들은 49재와 안장식이 진행되는 동안 생전의 고인을 회상하며 명복을 비는 모습이었다.

특히 49재동안 봉하마을을 지키며 상주

역할을 자임했던 안희정 최고위원은 안장식이 끝난 직후 상경한다며 임시 기자회견을 찾아 ‘고맙다’며 인사를 건넸다.

그러나 민주당의 총출동과 달리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은 김태호 경남도지사와 김종단 김해시장 등 단체장을 제외하면 거의 참석하지 않아 대조를 보였다.

/연합뉴스

2011년부터 학교·공공건물 석면지도 의무화

정부, 석면 관리 대책 발표

모든 공공건물과 학교 등은 2011년부터 석면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정부는 1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13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5개 분야에 걸쳐 18개 중과제와 55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학교, 군부대 시설,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의 석면 실태를 단계적으로 조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석면지도 작성의 의무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모든 공공건물과 학교에서, 2012년부터는 다중이용시설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13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서 의무적으로 석면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건축물 첨거나 멸실 신고시 석면 조사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건축물 소유자의 자발적

석면관리를 유도하려고 무석면 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의 석면 배출 기준(0.01개/cc)을 정하고 석면 제거 후 건축물을 철거하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석면 해체·제거 작업 중 주변 대기 중 석면 농도 측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영세한 농어촌 지역의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 및 처리 지원 방안도 함께 연구할 예정이

다. 석면 광산과 석면 함유 가능물질 광산 인근 지역에서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자연발생 석면 지역의 지질 분포도를 작성해 일반 토양에 함유된 석면의 노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부처별로 분산된 석면 관련 법과 제도를 통합하려고 내년까지 가장 ‘석면 안전관리법’을 제정해 범정부 차원에서 석면 문제에 대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신종플루 ‘지역 감염’ 추정 사례 첫 발견

해외를 다녀오지도 않고 감염 증세가 있는 주변 인물도 없는 상태에서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되는 첫 지역사회 감염(2차감염) 추정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신종플루 확산이 곧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지방에 거주하는 36세 여성 직장인이 지난 3일 발열, 인후통 등 증세가 나타나 표본감시기관인 인근 병원에서 정밀 역학조사 결과 인플루엔자A(H1N1) 양성반응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



농협 농수산물유통센터 기공

10일 광주시 광산구 수완택지지구에서 열린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기공식 참석자들이 축하버튼을 누르고 있다. 이날 기공식에는 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 박광태 광주시장, 이덕수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위작량기자 jrwi@

시 설

국립공원 규제 완화 관광 활성화 계기로

남해안 일대 해상국립공원지역에 대한 각종 개발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규제가 풀린 796km의 수자원 보호구역에 이어 남은 447km에 대해서도 개발행위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상국립공원지역내에 대규모 숙박시설과 해양레저시설, 탐방로 설치 등이 가능케 됐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물론 전남도 등 관련 자치단체는 해상국립공원지역에 대한 제한행위가 지나치다며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요구해왔다. 해상국립공원은 지역주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27년 전 일방적으로 선포됐다. 국립공원지역은 그동안 기본적인 편의시설 신축이 불가능해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감수해 왔다.

비가 새는 노후 주택도 복잡한 행정행위로 업무를 내지 못하는 등 주민 불편은 빚졌이었다. 흥도의 경우 전체 건

축물의 3분의 2가 불법 건축물로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각종 공공사업도 관계 기관과의 협의과정을 거쳐야 돼 공무원들이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발규제 완화로 해양레저와 숙박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촉진돼 남해안 일대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여수세계엑스포 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전망된다. 낙후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와 철도 등 교통편에 대한 사업비의 국고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규제완화로 인한 난 개발을 경계해야 한다. 개발행위가 허용되는 만큼 엄격한 환경보호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공원지역내 희귀 동식물을 잘 보존해 관광자원화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잇단 ‘묻지마 범죄’ 사회적 치유책 없는가

지난 8일 광주의 한 성당 앞에서 40대 여성 신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박모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국제결혼에 실패하고 우울증과 정신 분열증 치료를 받아 온 박씨는 경찰에서 “성당 신도들에 대한 막연한 적개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고 한다. 박씨는 또 지난 5월20일 광주 북구 용봉동 모 교회 인근에서 발생한 여의사 살해사건도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해 경찰이 증거확보에 나섰다. 사회를 향한 맹목적인 분노로 생면부지의 여성들을 애꿎게 희생시킨 것이다.

최근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범죄’로 무고한 이가 목숨을 잃은 일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일 순천시 황전면 금평리에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참가한 동네 주민 4명이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시고 2명이 숨진 사건 역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 사회에 묻지

마 범죄가 ‘위험수준’에 이른 것이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불특정인을 살해하는 ‘묻지마’ 살인이 사회병리현상 중 하나라고 할 때 누구든 증오범죄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걱정스럽다. 문제는 이런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마땅히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경찰력만으로 이런 범죄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묻지마 범죄’를 개인 문제로만 돌릴 수 없는 이유다.

대부분의 ‘묻지마 범죄’는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의식, 좌절 등이 누적되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이 극단적인 보복심리로 번진 경우다. ‘묻지마 범죄’가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 치유해야 할 일이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는 ‘묻지마 범죄’를 사회병리적 시각으로 접근해 사들터 예방 시스템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목포서 국내 첫 해양기상 관측선 만든다

기상청 130억 규모 건조 계약

국내 첫 해양기상 관측선이 전남 목포에서 건조된다.

10일 목포기상대에 따르면 기상청이 목포 고려조선소와 130억원 규모의 해양기상 관측선 건조 계약을 하고 오는 15일 목포에서 기공식을 연다.

이 관측선은 488톤에 최대 승선 인원 32명이며 가로 2.5m, 세로 3m 크기의 고층 기상관측 장비 등 첨단 장비가 대거 탑재된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G8정상,李大統領 제안 ‘워킹그룹’ 즉석 채택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G8(선진8개국) 확대정상회의에서 MEF(기후변화주요국회의) 워킹그룹(실무작업단) 구성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은 MEF 의장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의해 즉석에서 수용돼 주목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열린 G8(선진8개국) 확대정상회의 두번째 세션인 MEF에서 “기후변화에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 대처하려면 자원과 기술 이전

에 관한 원칙적 합의만으로는 부족하며, 세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MEF 참여 국가들이 실무 차원의 작업반(워킹그룹)을 만들어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더 구체적인 합의 도출을 위해 워킹그룹을 만들자는 이 대통령의 제안은 좋은 아이디어”라며 즉석에서 이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연합뉴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淸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虎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 회 2 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서울지사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제 재 부 2200-641		체 육 팀 2200-663					
사 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빛日만평

- 김중두



아니면 죄를 졌으니 벌금을 물릴까?!

“올 여름휴가 26~8.1일 절정”

국토부 조사…휴가비 가구당 45만원

올 여름에 휴가 인과가 가장 몰리는 시기는 7월 마지막 주이고, 동해안 지역으로의 피서객 몰림 현상이 여전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경기불황의 여파로 휴가를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국토해양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전국의 4천 가구를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해 1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가구의 28.3%가 여름휴가를 떠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휴가 시기로는 이들 중 가장 많은 34%가 7월 26일~8월1일을 꼽았고, 그다음이 8월 2일~8일(30.1%)과 8월 9일~15일(10.1%) 순으로 조사됐다.

휴가 예정지로는 동해안을 지척한 응답이 23.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남·호남내륙(18.5%), 강원·충청내륙(16.3%), 남해안(16.1%), 서해안(11.7%), 제주도(6.0%) 순이었다.

휴가 중 이용할 고속도로로는 영동선(28%), 경부선(20.6%), 서해안선(19.1%), 중부선(10.4%), 남해안선(6.1%)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한편 올해 여름휴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 비율(28.3%)은 경기침체를 반영해 지난해 조사 때보다 6.1% 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휴가를 계획하지 않은 이유로는 비용 부담을 지친한 응답이 3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업무(22.7%), 자녀 학원(10.4%), 교통 혼잡(6.4%) 순이었다.

가구당 휴가 비용도 작년보다 14만원 감소한 평균 45만원이 들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